

광주시부

-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

박대성 / 우리 협회 광주시부 기사

옛날 중국의 은나라에 부열이라는 어진 재상이 있었다. 은나라 왕인 고조는 재상 부열에게 항상 의견을 물어 좋은 정치를 했다. 한번은 부열이 왕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생각이 옳으면 이를 행동으로 옳기고, 그 옳기는 것을 시기에 맞게 하십시오. 스스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자만하면 그 옳은 것을 잃게 되고,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게 되면 그 공을 잃게 됩니다. 모든 일은 다 순서가 있는 법이니, 갖춘 것이 있어야만 근심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무조건 시작할 게 아니라, 먼저 그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한 뒤에 실행해야만 뒤달이 없다’는 뜻으로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비무환이란 성어에 얽힌 이야기다.

우리가 하는 일과 가장 걸맞는 성어가 아닌가 싶다. 무슨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철저하게 준비시키고 미연의 사고에 대비하는 일이 바로 우리 일이기 때문이다. 안전관리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업주는 사업주로서, 관리책임자는 책임자로서, 근로자는 근로자로서 각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어느 한 사람만 열심히 부지런히 한다고 해서 쉽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 아침에 완성되는 일도 아니다.

하루에 2~3곳의 건설현장을 지도 점검하면서 방문시마다 느끼는 것은 일회성 안전에 대한 책임회피와 안전의식의 결여라는 것이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사업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안전관리자는 자신의 영역 밖의 일이라는 식의 상투적인 답변을 들을 때마다 각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사명의식과 책임의식을 좀더 뚜렷하게 가질 수는 없을까하는 아쉬움이 생긴다.

결코 한 단체나 그룹에 의해서는 전반적인 안전의식은 바뀔 수가 없으며 의식을 주도해 나갈 수도 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각 사업장들을 찾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자신의 임무가 무엇이며, 어떤 일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거의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며, 이런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다시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발주자와 시공자의 원활한 업무추진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 있으며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려는 현장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지구 교량가설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이 현장은 안전관리책임자를 비롯해서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가 모두 공사착공 전에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수료했다. 그리고 각자가 책임지고 있는 공종별 안전관리를 위하여 나름대로의 자료를 수집하여 본공사가 활발히 진행될 때를 위하여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계획서와 표준안전관

리비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차후 공사 진척에 따라 발생할 상황에 대비하고 있고, 각 공종별 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시 현실 여건과 작업조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근로조건 마련과 근로자의 안전확보·안전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시공 측량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의 기술지도 점검이었지만 진지한 의견교환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안전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고 있는 현장이 한 군데라도 있다는 것과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데서 일종의 뿌듯함(?)마저 느꼈다.

지난 4월 2일 산업안전선진화기획단은 '99년까지 재해율 0.5% 달성이라는 대명제 아래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고, 그 중 범국민 안전의식 고취의 일환으로 매년 7월 1일을 안전의 날로 정해 산업안전보건대회, 산재에 방유공자 포상, 안전보건학술 세미나 등 범국민적인 안전보건행사를 전개할 방침이며 안전관련 및 시민·여성단체로 안전문화추진사업단을 구성 운영하고 안전문화 봉사대 발족, 가정주부 중심의 생활안전조직 구성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와 함께 고교 교과과정에 안전교과목을 신설하고 안전생활 지도교사를 양성하는 등 가정, 학교, 사회를 연결하는 안전교육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중소기업의 사업내 안전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유해위험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업종별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확대하는 등 사내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한다고 한다. 안전이 근로현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안전의 생활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근본취지에 부합된 조치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광주지부는 1995년 4월, 건설안전기술 지도를 통해 귀중한 인명과 경제적인 손실의 재해를 예방한다는 목적 아래 업무를 시작하여 현재는 지부장을 비롯한 총 7명의 인원이 광주, 전남북 지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96년 6월 현재 금년도 계획량의 약 40%를 달성한 상태이지만 전북지역의 계약건수는 전체 계약건수의 약 10% 미만을 차지한다. 차후 전북지역에 연락소 설치문제가 해결된다면 비약적인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현 지부장으로 계신 김윤중 전문위원의 오랜 현장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직원이 업무를 조



광주지부 임직원 일동(좌로부터 이기영기사, 황대중 사원, 필자, 김은옥 사원, 박광삼 기사, 김윤중 지부장, 박일석 기사)

직적으로 분담하여 추진해 왔다. 모든 업무 추진은 전산화를 도모하여 보다 효과적이며 능률적인 진행과 확고한 data base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각 현장별 특성에 맞는 기술지도를 취하여 동종의 재해사례 전파와 안전 시설물의 올바른 설치 및 운영방법, 안전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업무 수행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작업규모가 작은 현장이라도 공사착공과 함께 수행되는 기술지도를 통하여 단 한 건의 경미한 안전사고도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전 직원의 능력배양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된다. 시공을 하고 있는 작업장에서 돌아봐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집중강우로 인한 토사 유실과 구조물에 미칠 악영향, 지반지지력 약화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은 해마다 반복되는 악순환이다. 그러기에 오늘도 각 현장으로 나가는 직원들의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미리 미리 준비하고 있음으로써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는 성과물에 비하면 우리의 수고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만화로 배우는 안전(3)

◆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는 무섭다

- 100V 저압 전기라도 방심하지 마세요.
- 분전판 등의 전기 설비에 가깝게 접근하거나, 멋대로 만지거나, 피복이 벗겨진 전선에 손을 대지 마세요. 필요가 있을 때는 전공에게 부탁하세요.
- 전선 스위치는 젖은 손, 발로 만지지 마세요.
- 분전판 스위치는 언제나 관리에 소홀함이 없고 긴급한 경우 바로 꺼버리세요.
- 전선에 기구, 철 등을 건다든지 밟지 마세요.
- 전선 위에 자재를 올려 놓지 마세요.
- 전기 기구의 아스는 감전 방지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멋대로 만지거나 뺏지 말아 주세요.
- 고압선 근처에 가지 마세요.
- 고장이 있을 때 직장의 상관 혹은 원청의 직원에게 알려주세요.

